***다윗과 므비보셋과 하나님의 인자하심***

**7/25 월**

**삼하 9:3, 7-9, 11**
**3** 왕이 물었다. “사울 온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이가 있는가?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고자 하네.”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말하였다. “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 있는데, 다리를 접니다.”
**7** 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. “두려워하지 마시오. 내가 분명히 그대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그대에게 친절을 베풀겠소. 내가 그대의 할아버지 사울의 온 땅을 그대에게 돌려줄 것이오. 그리고 그대는 항상 내 상에서 음식을 먹도록 하시오.”
**8** 므비보셋이 경의를 표하며 말하였다. “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와 같은 저를 돌아보십니까?”
**9** 왕이 사울의 시중을 들던 시바를 불러 말하였다. “사울과 그의 집에 속한 모든 것을 자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겠네.
**11** 시바가 왕에게 말하였다. “저의 주군이신 왕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대로 이 종이 하겠습니다.” 그러자 다윗이 말하였다. “므비보셋은 왕자들 가운데 하나처럼 나의 상에서 음식을 먹도록 해야 하네.”

**엡 2:4-7**
**4** 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,
**5** 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(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)
**6** 그분과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습니다.
**7** 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오는 여러 시대에 보여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.

**엡 3:8**
**8** 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,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

**7/26 화**

**롬 2:4**
**4** 아니면,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려는 것을 그대가 알지 못하고, 그분께서 그토록 인자하시고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을 멸시하는 것입니까?

**고후 6:4, 6**
**4** 다만 우리는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추천합니다. 곧 우리는 많은 인내를 하고 환난과 궁핍과 곤경에 처하고
**6** 또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인자와 거룩한 영과 거짓 없는 사랑과

**삼하 9:4-6**
**4** 왕이 그에게 “그가 어디에 있는가?”라고 묻자,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. “지금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.”
**5** 다윗왕이 사람들을 보내어, 그를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데려오게 하였다.
**6** 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경의를 표하였다. 다윗이 말하였다. “므비보셋이여.”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. “왕의 종이 여기에 있습니다.”

**롬 3:11**
**11** 깨닫는 이도 없고,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도 없다.

**겔 34:11, 15-16a**
**11** 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. 나 곧 바로 내가 직접 내 양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을 찾아다니겠다.
**15** 내가 직접 내 양 떼를 목양하고 그들을 눕게 하겠다. 주 여호와의 선포이다.
**16** 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 흩어진 양을 다시 데려오며 상한 양을 싸매 주고 병든 양을 강하게 하겠으나, 살찌고 힘센 양은 없애 버리겠다(나는 심판으로 그들을 먹이겠다).

**벧전 2:25**
**25** 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으나, 이제는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.

**7/27 수**

**삼상 20:14-15**
**14** 그리고 내가 아직 살아 있는 동안에 나에게 여호와의 자애를 베풀어 내가 죽지 않게 해 주기를 바라네.
**15** 그리고 여호와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지면에서 끊어 버리실 때에도 나의 집에 베푸는 자애를 끊지 말아 주게.”

**골 3:12**
**12** 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이니,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인자와 겸허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으로 입으십시오.

**눅 15:20-24**
**20** 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. 아직도 거리가 먼데,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,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.
**21** 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. ‘아버지, 내가 하늘을 거슬러 죄를 짓고,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습니다.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.’
**22** 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노예들에게 ‘어서 그 제일 좋은 겉옷을 내어다 입히고, 손에 반지를 끼우고, 발에 신을 신겨라.
**23** 또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.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.
**24** 왜냐하면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, 잃었다가 되찾았기 때문이다.’라고 하니, 그들이 즐거워하였습니다.

**시 103:8-13**
**8** 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자애가 풍성하신 분.
**9** 항상 책망하지는 않으시며 영원히 진노를 품지도 않으신다.
**10** 우리 죄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 죄악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않으셨다.
**11** 하늘이 땅 위로 높이 있는 것같이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자애가 크시기 때문이다.
**12** 동이 서에서 멀리 떨어져 있듯 그분은 우리의 잘못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셨다.
**13** 아버지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는 자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다.

**7/28 목**

**삼하 9:13**
**13** 므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. 그는 두 다리를 모두 절었다.

**히 12:2**
**2** 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.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.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.

**히 2:9**
**9** 다만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봅니다. 그분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습니다. 그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.

**롬 8:1-4**
**1** 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유죄판결을 받지 않습니다.
**2** 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.
**3** 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. 곧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,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판결 하심으로써
**4** 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.

**딤전 1:13-15**
**13** 전에 나는 모독하는 사람이요, 박해하는 사람이요, 모욕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러나 그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동한 것이었기 때문에,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.
**14** 또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갖게 하셨습니다.
**15** 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믿을 수 있고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. 내가 죄인들의 우두머리입니다.

**느 8:10**
**10** 그때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. “여러분은 가서, 기름진 것을 먹고 단 포도주를 마시며,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이에게 몫을 보내 주십시오. 오늘은 우리 주님께 거룩한 날입니다. 슬퍼하지 마십시오.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.”

\

**7/29 금**

**딛 3:4-5**
**4** 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셔서,
**5** 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.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, 그분의 긍휼에 따라 새로 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.

**요일 4:9-10**
**9** 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.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,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.
**10** 사랑은 이렇습니다.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,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.

**요 1:14, 16-17**
**14** 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,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.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,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.
**16** 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, 은혜 위에 은혜였다.
**17** 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, 은혜와 실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.

**롬 9:15-16, 18, 23**
**15** 하나님께서 모세에게 “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,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.”라고 하셨습니다.
**16** 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, 달음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,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.
**18** 그러므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, 고집스러워지게 하실 사람을 고집스러워지게 하십니다.
**23** 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?

**7/30 토**

**엡 2:7-8**
**7** 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오는 여러 시대에 보여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.
**8** 여러분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.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, 하나님의 선물입니다.

**엡 4:32**
**32** 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며,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.

**골 3:1-4, 12-15**
**1** 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면,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.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.
**2** 여러분은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,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.
**3** 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,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.
**4** 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.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.
**12** 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이니,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인자와 겸허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으로 입으십시오.
**13** 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다면, 서로 짊어지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.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같이, 여러분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.
**14** 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옷으로 입으십시오. 사랑은 온전하게 연결하는 띠입니다.
**15** 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. 여러분이 한 몸 안에 부름을 받은 것도 이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.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.

**7/31 주일**

**빌 2:1-11**
**1** 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격려나, 사랑의 어떤 위로나, 영의 어떤 교통이나, 어떤 부드러운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
**2** 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, 같은 사랑을 가지며, 혼 안에서 연결되고,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,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.
**3** 어떤 일도 이기적인 야심으로 하지 말고, 헛된 영광을 위해 하지 말며, 오직 생각을 낮추어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십시오.
**4** 각자 자기의 장점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, 다른 사람들의 장점도 귀하게 여기십시오.
**5** 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.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.
**6** 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으나,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,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,
**7** 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,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,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,
**8** 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,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,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.
**9** 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,
**10** 하늘에 있는 이들과 땅에 있는 이들과 땅 아래 있는 이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도록 하시고,
**11** 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.

1. **2022. 7. 25 ~ 2022. 7. 29**
2. 단체로 읽을 말씀: “생명 나무”, 4-5장
3. **찬송
26**

***The Church in New York City***

www.churchinnyc.org